



한국 사회의 발전과 교회의 역할

지난 6월 12일 대구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에서 2010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사회의 발전과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회에서는 총 3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기독교자들의 열띤 토론과 교류의 장이 되었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기초 강연의 전문요약본과 분과 발표 총평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I 서론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과 최근의 한류 열풍, 그리고 월드컵 4강, 동계올림픽 5위, UN 사무총장 배출, G20 개최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면서 한국의 발전상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140여개 국가 중에서 국가 건설에 성공한 나라는 40여개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에도 경제성장에 성공해 국민소득이 만 불을 넘는 나라는 선진국을 포함해서 50개 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한국이 있다. 게다가 한국은 두 차례에 걸친 평화적인 선거로 정부가 바뀌면서 민주화도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 받는다. 1997년의 아시아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 최근의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도 한국은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발전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발전도 놀라운 수준으로 세계 선교회에서 눈부신 공헌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일제와 공산당에 항거하며 순교한 선혈들의 희생 덕분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셨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주장을 광신자의 착각으로 여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교회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등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비리가 세간의 비난거리가 되었고, 인터넷 상에도 안티 기독교 그룹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종교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에도 기독교 신자의 수는 계속 줄어들면서 무기력한 패배주의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세계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교회의 성장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정작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감히 펼칠 수 없는 형편이다.

한국 경제 발전과 교회의 성장

지난 1911~2007년 기간 중 약 100년 간 남한의 GDP는 82.6배, 인구는 4.4배 증가했다. 그 결과 1인당 GDP는 18.9배가 증가했으며, 100년 동안 연평균 3.1%로 성장했다. 한국은 GDP 면에서 약 2만 달러로 세계 14위다. 통일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국력지수는 2010년의 경우 186으로 세계 11위였다. 또한 한국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여 골드만삭스는 지난 2009년에 발표한 보고서(No. 188)에서는 한국이 통일된다면 남한의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고급 인력과 광물 자원이 결합하여, 2050년경에는 일본과 독일을 능가하는 경제규모를 가질 것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 지역은 9만6천 달러, 북한 지역이 7만 달러, 평균 8만8천 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한국경제 압축 성장 시기에 한국교회도 함께 급성장했다. 종교별 인구에 관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



면 1990년도에는 총인구의 16.1%가 기독교인이었는데 1995년에는 19.7%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경제가 성장하던 기간에 기독교인의 수도 동반 상승하였던 것이다.

인적자본의 형성과 한국 기독교의 역할

한국의 경우 풍부한 노동력과 높은 교육수준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게 된 이유는 유교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근대교육의 도입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이 훨씬 더 크다. 한국에서의 근대 교육은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1885년에 배재학당을 열어 우리나라 신교육의 개척자적 역할을 한 북감리회의 아편젤러 목사, 경신학교의 전신인 언더우드 학당을 설립한 언더우드 선교사,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턴 정신여학교를 설립한 엘레스, 숭실학교를 설립한 베어드 선교사 등 한국의 근대교육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특히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 미션 스쿨의 설립이 가속화되면서 학교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부흥운동을 지나면서 불과 7년 만에 초등학교의 경우 무려 10배가 증가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도움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열정에 힘입어, 한일합방 직전인 1910년 2월까지 설립된 기독교계 학교는 장로교가 세운 학교가 501개,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가 158개, 성공회가 47개, 종파미상 84개, 각파 합동 1개, 천주교가 46교로서 신구교회화 세운 학교 수가 모

두 796교였다. 이와 같이 개신교 특히 장로교와 감리교가 조선에서 사립학교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일제 하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던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인이 많았는데, 이들은 신앙에 의지하여 독립을 추구했으며, 독립의 방법으로 교육을 강조했다. 남강 이승훈(1864-1930)은 오산학교를 세웠고, 고당 조만식은 오산학교의 교장을 맡아, 주기철, 김동진, 한경직, 김홍일 등 한국의 지도자를 배출했다. 흥사단을 창설한 도산 안창호(1878-1938)도 고향인 평안남도 상서군 송만리에 점진학교, 그리고 후에 대성학교를 세웠으며, 백범 김구(1876-1949)도 역시 기독교인으로 을사조약 철폐운동에 실패하자 민족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사업에 전념하여, 1906년에 장연에 광진학교를 세웠다. 이러한 초기 선교사들과 조선 선각자들의 영향에 의해서 현재에도 한국의 사립학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사회 개혁을 통해서 조선사회에 팽배한 전근대적 가치관과 악습을 타파하고 근검, 절약의 정신을 확산시키는 등 기독교가 큰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사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해서 기독교가 근대식 교육의 확산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제도 개혁

한국의 경제성장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은 한국의 우수한 인적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과 함께 일찍부터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서구의 자본주의의 뿌리를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찾았다. 그런데 에르난도 데 소토는 자본의 미스터리: 왜 자본주의는 서구에서만 성공했는가에서 비서구 국가들이 자본주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제도의 실패에서 찾았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서 시장경제제도를 창출하는데 성공했는가? 한국의 시장경제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이식되었다. 화폐와 시장이 통합되었고, 일본의 법제도가 조선에 그대로 이식되었다. 그런데 식민지 조선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에서, 중일전쟁을 계기로 전시통제경제로 전환된다. 해방 이후에 북한은 식민지 시기의 모든 법령을 폐기하고 시장경제로 되돌아가지 않은 반면에, 남한은 시장경제로 복귀하였다. 일본은 패전 이후에 전시장제 시스템을 고도 성장기에 그대로 활용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도 더 충실하게 해방 후에 시장경제로 복귀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서구 국가의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였고, 미국이 해방군으로 진주했기 때문에 미국의 체제인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감이 덜했고, 따라서 이승만의 주도 하에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6.25 전쟁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6.25 전쟁 전후에 공산주의 지식인들은 월북했고, 북한에서 탄압을 받았던 250만 명의 지식인, 기독교인들과 자주계급은 월남했다. 월남한 북한 출신 지식인과 자주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자들로 후에 남한의 상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정부수립 당시에 제정된 한국헌법에는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노동자에 의한 기업이윤 환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채택하였으나, 6.25전쟁 후인 1964년 개헌에서는 자유기업을 원칙으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했다.

한국 경제성장의 원인의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시장경제의 수용과 유지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이러한 과정에 어떻게 기여를 했을까?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의해서 시장경제제도가 이식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해방 이후에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승만 정부의 각료들이 모두 기독교인이었다는 정도에서 약간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6.25전쟁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반공이데올로기에 동참했고, 이것이 반공을 국시로 여긴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경제성장은 정말 기적과 같은 것이고, 이 모든 기적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발전과 관련해서 우리는 과거 한국이



김승욱



어려울 때, 일본 제국주의를 탓하고, 전쟁을 탓하고, 독재를 탓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제3세계 국가들도 대부분 그들이 못 사는 이유를 여기서 찾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다 겪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원망했던 일제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근대사회의 봉건적 잔재를 일소할 수 있었고, 서구의 근대적 제도를 수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에 의해서 식민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체제인 시장경제에 대한 반감이 적었다. 6.25 전쟁 기간 중에 마치 쇠가루가 북극과 남극에 모이듯이 공산주의자들과 반공주의자들이 딱 갈라진 사이에 철의 장막이 쳐졌다. 만약 경제 개발 초기에 남한 내부에 공산주의자들이 그대로 있었다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지 못해서 압축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재에 대해서 언급하면, 많은 나라들이 독재로 인해서 민주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북한도 그러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필리핀이나 북한처럼 나라를 망하게 한 독재도 있지만, 나라를 바로 세워 국부로 칭송받는 독재기도 있다. 싱가포르의 이광호나 대만의 장계석,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마차르가 그러한 독재자들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 부류에 속한다. 또한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고 있고, 역대 한국의 모든 대통령이 그 시대에는 꼭 필요한 존재였다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 경제성장의 원인에 대해서 다른 요건들을 제시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

한국사회를 위해 앞으로 교회가 할 일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통일 한국과 세계 선교 문제이다. 둘째는 세계화와 다민족 사회의 문제에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셋째는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문제이다. 가진 것이라고는 인적자본 밖에 없는 한국사회로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문제는 기독교인의 비중이 18.3%인데, 대학생은 이 비율이 4%에 불과하고, 고등학생은 3.5%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기독교인의 비중이 그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음 세대까지 기독교를 이어가며 한국 사회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도 교회가 직접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설립에 보다 힘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글.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회장 및 실행위원장